

자녀교육비 및 노부모에 대한 생활비 지원이 둘째자녀 출산의도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 20~45세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

Effects of Education Expenditure for a Child and Financial Support to Parents on
Childbirth Intention, Elderly Life Preparation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노인복지전공
전임강사 이 선 형**

Dept. of Elderly Welfare of Hoseo Univ.
Full-time lecturer: Lee, Sun Hyung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education expenditure children and financial support for parents on childbirth intention and, elderly life preparation. This study uses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data. The research subjects are married women aged between 20~45 years old who have one child and are living with at least one parent. The analysis method includes chi-square analysis, frequency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hich is suitable for presuming differences between groups and relative influence or power.

As a result, the first subjective perception is that economic conditions influence childbirth intention and elderly life preparation. Second, the portion of education expenditure is a more important factor than traditional ones, such as the child's sex, the married woman's job and her income. Third, elderly life preparation is influenced

* 본 연구는 2008년도 호서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임.

** 주저자, 교신저자: 이선형 (visunh@hosco.edu)

by economic factors,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subjective or objective factors. Finally, analyses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uggest that a decision about childbirth is influenced by education expenditure. This refer to the costs related to the child's generation. A decision about elderly life preparation is related to financial support from parents, meaning costs related to the parents's generation.

Key Words : 자녀교육비(education expenditure), 노부모생활비 지원(financial support to parents), 출산의도(childbirth intention), 노후준비(elderly life preparation), 세대간 계약(generational contract)

I. 서론

선진국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저출산문제와 고령화문제를 고민해오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선진국과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면서 동시에 노인의 상대적, 절대적 인구의 증가가 세계에서 가장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출산과 고령화 각각의 현상으로 인한 문제뿐 아니라, 두 현상 모두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인구 및 노동력 고령화 문제, 부양인구 감소로 인한 노인부양지수의 증가, 이로 인한 노인인구의 신체적·경제적 부양문제 등이 다른 나라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분한 준비시간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준비해왔던 선진국과는 다르게 이에 대해 준비할 시간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율을 높이며 최대한 고령화를 늦추면서 이러한 문제를 준비해나가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반면 한국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서 다른 나라와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는 독특한 이유 중 하나로 한국의 가족주의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가족의 가치를 중요시하며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에 대한 몰입도가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가족을 중심으로

로 이루어지고 가족의 의사결정은 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핵가족을 단위로 하는 가족만이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즉 중년기 세대와 자녀, 그리고 그 부모세대인 양가 가족들, 더 나아가서는 형제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출산에 대한 결정이나 노후준비 등의 부부의 의사결정에도 가족적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실제로 많은 부모들은 선진국의 부모들이 일찍부터 자녀를 독립시킴으로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음에 반해, 한국의 부모들은 어려서부터 자녀교육비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시기도 늦어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틈이 없다. 즉 자녀세대로의 비용부담은 출산이라는 부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중 하나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행태 및 의식구조 분석결과 보고서에서 소비생활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부담을 주는 비목으로 교통비(39.1%) 다음으로 교육비(37.6%)가 꼽혔으며 상당수의 부모는 자녀의 교육비에 부담을 갖는 것으로 보고했다(연합뉴스 2007년 12월 5일자).

중년기 세대의 부부는 부양해야할 자녀세대 뿐 아니라 노부모세대도 갖고 있다. 일찍부터 사회보장으로서 공적연금체계를 갖추고 있던 선진국의 경우 공적연금 수급률은 90%가 넘으

나(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08; U.S. Census Bureau, 2005) 우리나라의 공적연금가입률은 중년층의 경우에도 60~70%에 불과하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b; 통계청, 2007; 경기지방통계청, 2007). 국민연금의 완전연금수급자는 2008년 들어서부터 나오기 시작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늦게 갖추어진 한국의 공적연금 체계로 인해 상당수의 노인들은 빈곤한 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년기 세대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부담은 선진국의 그것보다 크다고 예측해볼 수 있다.

더군다나 중년기의 부양 부담은 그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예비노년기인 중년층의 부양 부담이 과도하다면 자신의 노후준비가 미흡하여 본인이 노년기가 되었을 때 다시 자식의 부양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안종범·전승훈(2008)은 세대간, 연령집단간 자원흐름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즉 생애주기가설에서처럼 인생의 초반부는 소비가 노동소득을 초과해 적자를 보이다가 20대 중반에 이것이 역전되어 노동소득이 소비를 초과하고 58세 이후에 다시 소비가 노동소득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적자는 주로 두 가지, 즉 자산의 재배분(저축과 자산소득, 신용)과 경제주체간의 이전(가족 등을 통한 사적 이전과 국가에 의한 공적 이전)에 의해서 메워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자보다는 후자에 의해 주로 메워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거의 모든 연령에서 공적 이전보다 사적 이전의 비중이 크며 이는 공적 이전의 역할이 큰 서양문화권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현상이라 지적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년기의 세대간 부양부담에 대한 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적다. 특히 이들이 갖고 있는 부양부담에 대해 문헌연구를 한 연구는 일부 있으나

(이희자·김영미, 1996) 이는 신체적 부양에 대한 문제를 다룬 경우가 많고(손서희, 2004; 이운정, 1994; 조세희, 2002; Amirkhanyan, A. A. & Wolf, D. A., 2006; Musil, C. M., Warner, B. Zauszniewski, J. A., Jeanblanc, A. B., & Kercher, K., 2006), 이를 경제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일부 있는 형편이다(윤경선, 2004; 이재춘, 2007; 조순옥, 2001). 또한 노인 부양문제에 대해서 다루거나(김명록, 2006; 김태현, 1981; 임월, 1997; Rose, J. H., Bowman, K. F., O'Toole, E. E., Abbott, K. Love, T. E. Thomas, C. & Dawson, N. V., 2007), 자녀의 사교육비와 자녀양육 부담에 대한 문제를 다룬 논문들은 증가하고 있으나(박현주, 2006; 이성림, 2005a, 2005b; 허경옥, 2007) 이에 대한 세대 간 관계에 대한 관점을 갖고 접근한 논문들은 아직까지 드문 실정이다.

현재 중년기 세대는 자녀수는 적으나 자녀에 대한 양육과 교육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노인부양비 역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저출산의 문제는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함께 맞물려서 풀어야 하는 문제로 보고자 한다. 즉 지금의 중년층 세대는 부모 부양과 더불어 자녀 양육을 동시에 맡아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로서의 고민이 있음을 살펴보고 이것이 자신의 노후준비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가족의 세대간 계약 관계

평균수명이 65세 정년연령에 미치지 못하던 시기(1960년 평균 52.4세, 1970년 62.3세, 통계청, 2005)까지 한국에서 행해지던 노인부양의

〈표 II-1〉 경제활동인구 추이

(단위: 천명, %)

	15세 이상 인구	경제 활동 인구			경제 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취업자	실업자		남성	여성			
1963	14,551	8,230	7,563	667	56.6	78.4	37.0	8.1	52.0
1970	17,468	10,062	9,617	445	57.6	77.9	39.3	4.4	55.1
1980	24,463	14,431	13,683	748	59.0	76.4	42.8	5.2	55.9
1990	30,887	18,539	18,085	454	60.0	74.0	47.0	2.4	58.6
2000	36,186	22,069	21,156	913	61.0	74.2	48.6	4.1	58.5
2007	39,170	24,166	23,433	733	61.7	73.9	50.1	3.0	59.8

주: 실업자 및 실업률에 대해 과거 자료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구직기간 1주 기준으로 산출

실업률: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고용률: 만15세이상 인구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형태는 장남이 노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는 형태였다. 가족마다 상황은 약간씩 다르지만 이는 젊어서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투자하고 노후를 보장받는 암묵적인 세대간의 계약(generational contract)에 근거한 것이었다. 더군다나 60, 70년대 30%대였던 여성취업률은 2007년 기준 50.1%까지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의 성별 격차는 1960년 38.6%였던 것이 2007년 23.8%로 감소하였다(<표 II-1> 참조). 이러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선진국의 그것보다 10% 이상 낮은 상황이므로 앞으로도 여성들의 경제활동 증가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므로 앞으로 가정내 여성들이 노인부양을 책임지던 형태와는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가와 사회는 가족내에서 특히 여성의 노동력에 의존하던 아동과 노인의 부양문제와 이를 위한 비용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기 전 가족부양문제는 크게 두 가지 사실이 전제되고 있다. 첫째는 가족내 부양은 무보수 가사노동을 통해 이루어지며 가족은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아동양육이나 노인수발을 가족외부의 시장에

맡겼을 경우 비용을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정내의 부인이 담당하게 될 경우에는 비용으로 산정되지 않는다. 그동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아동양육에 대한 비용과 노인수발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이러한 현상이 사적인 문제로 묻혀 있었으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늘어나고 현실적으로 여성들이 여러 이유로 직업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 증가하면서 가정내 돌봄인력의 감소문제는 가족이 맺고 있는 암묵적인 세대간 계약을 위협하게 되었다.

가족부양문제의 또 다른 전제는 인간의 인생행로에서 독립과 의존의 단계가 교차하고(엘리자베트 벡-게른스하임, 2005) 이를 세대 간에 서로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처음 인간이 태어나면 부모나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의존하다가 일정 연령이 되면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 생활하게 되고 다시 나이가 들면 신체적으로, 일부는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단계로의 전환을 거쳐 이를 돌보아야 할 수발의 필요를 야기하게 된다. 그러나 노인의 평균수명 증가로 인한 노년기의 장기화 문제는 이러한 암묵적 관계의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의 의존적인 기간이 길지 않았지만 현재 평균수명의 증가는 수발 등 돌봄 기간을 크게 증가시켰고 이에 따른 비용상의 문제인 경제적 부담 또한 야기하게 되었다. 자녀세대의 경우 앞에서 논의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부양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유급 돌봄노동자들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약자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은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지불되거나 사적으로 가정에서 해결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돌봄노동에 대한 비용 문제가 야기되었고, 이 역시 가족의 세대간 계약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2. 출산 의도에 관한 선행연구

출산은 아이를 낳는 것으로 가족의 사적(私的)인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최근 한국 가족은 저출산이라는 집단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사회적 이슈화가 되었고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와 맞물려 인구의 고령화문제, 부양문제, 노동력 문제 등을 야기하는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¹⁾. 이에 따라 최근 저출산과 관련하여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출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정책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요인을 규명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다. 왜냐하면 출산은 어느 한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아이를 갖고자 하는 욕구가 우선 이루어져야 하고,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의도가 먼저 생성되어야 하지만

또 이 둘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김춘숙, 2008). 또한 대부분의 가족에게 출산행위는 일생에 몇 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출산욕구 및 의도가 행위로 이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장기적인 추적조사를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여러 연구에서는 출산이라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크게 3가지 정도의 연구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첫째로는 대단위 조사로서 가족보건의 관점에서 출산행태, 피임과 인공중절 등의 다양한 내용을 조사하는 출산력 조사가 있다. 이는 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되는 전국자료나 국제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2004a). 두번째로 출산계획 및 의도를 중심으로 한 연구로서(김중식, 2006; 차경옥, 2006; 김윤성, 2007; 박은영, 2007; 마미정, 2008), 여기에서의 출산의도는 임신/출산 가능성에 대한 의사 또는 욕구, 생각의 정도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게 된다(박현주, 2006). 앞에서 제시한 이유로 인해 출산행위를 그 자체를 살펴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출산계획이나 의도는 여러 연구에서 출산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대리변수로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세 번째 연구 경향인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 등에 관한 결과가 파생되어 보고되고 있다(우석진, 2007; 장보현, 2006; 한선영, 2006).

이러한 연구경향 중 출산의도와 관련해서는 최근 초산과 재출산 의도(혹은 후속출산, 둘째 자녀출산 의도)를 구분하여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김윤성, 2007; 박은영, 2007; 김중식, 2006). 왜냐하면 출산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무자녀가족으로 살 것인가 유자녀가족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라

1) 저출산이 갖는 부정적 결과(노인부양비 증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노동시장에의 영향 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논의 생략

면, 한 아이를 출산 한 후 더 낳을 것인가 단산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에는 전자와는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여성 취업(및 취업의도)이 증가하면서 첫아이를 통해 직장생활과 아이 양육을 병행하는 것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게 된다든지 경제상황의 악화와 사교육비 부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 가족이 아이를 키우면서 당면하게 될 상황을 긍정적으로 예측하지 못하게 하는 외부요인들이 발생함으로 추가로 자녀를 더 낳는 결정을 유보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

다음의 연구들에서 둘째자녀 출산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김중식(2006)의 연구에서는 둘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재출산 계획의향이 가장 높이는 요인으로는 사교육비경감, 양육의 부모책임에서 국가책임으로 전환, 주요 산전검사 보험급여 확대, 출산휴가급여 현실화 등을 들고 있었다. 마미정(2008)은 특히 맞벌이 부부의 둘째 자녀 출산요인에 대해 출산기 피집단과 출산의도집단으로 나누어서 연구하였는데, 그동안의 선행연구에서처럼 아내의 일과 육아병행에 대한 부담이 저출산의 지속요인으로 지적되었고, 출산을 하고자 의도하는 집단은 정서적 요인인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3. 중년층의 경제적 부양 부담과 노후준비에 관한 선행연구

선진국에서는 노인들에 대한 국가의 공적인 노후보장이 긴 시간동안 준비되고 시행되어 왔다면 우리나라는 자녀들에 의한 사적인 노후보

장의 형태에서 1988년 최초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통해 공적 노후보장의 시대를 열었다. 이에 따라 2008년 처음으로 완전연금을 타는 노인들이 생기기 시작하여 아직까지는 공적 노후보장에 의한 노후 준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4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가계의 노후준비율이 28.3%(비노인가계 66.1%)에 불과하던 것이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 2005년 55.0%, 2007년 61.8%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05; 2007).

그러나 이러한 준비율은 노후준비가 얼마나 충분한가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로, 선진국의 경우에도 공적연금 외에 기업연금과 개인연금 등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고 있으나(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08) 한국에서는 준비율 자체도 낮은 편이며 이것이 얼마나 충분한 노후준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부에서 공적연금 소득 대체율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점차 낮출 예정이어서²⁾ 일정부분은 아랫세대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 보험 또한 65세 이상의 노인들(혹은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수혜 대상으로 하지만 보험금은 아래세대가 건강보험료의 4.05%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세대의 부양을 담보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부양 부담은 중년층 세대의 노후준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부모부양 외에 자녀세대에 대한 부담도 큰데 통계청의 2008 사회통계조사를 보더라도 학생이 있는 30대 이상 가구 중 79.8%가 교육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한국의 공적연금은 앞으로 소득대체율을 계속 낮추는 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2008년도부터 소득대체율 60%를, 가입기간에 따라 30%(20년)에서 45%(30년)를 보장했으나, 2008년도부터 급여율은 50%로, 2009년부터는 매년 0.5%p씩 삭감해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법안을 의결한 상태이다(뉴시스, 2007년 6월 29일자).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에서 가용자원에 대한 인식이 노후준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중년층이 이러한 노인 세대와 자녀세대 대한 부양부담으로 가용자원이 적다고 인식할 경우 노후준비를 소홀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박창제, 2008). 이성림(2005b)의 연구에서 소득수준이 낮아 저축여력이 약한 하층에서는 거의 전적으로 소비를 줄임으로써, 상층으로 갈수록 저축을 감소시킴으로 사교육비를 충당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높은 수준의 교육비 부담은 현재소비 감소와 저축감소를 야기할 수 있고 이러한 결과는 다시 현재 세대가 노인이 되었을 때 노후준비가 충분치 못하게 될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노부모 부양과 노후준비와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III. 연구방법

1. 자료 및 분석대상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여성가족패널조사로, 중년층의 출산의도와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결정요인 등을 살펴보기 위해 45세 미만³⁾의 기혼여성에게 자녀가 1명 있고 노부모 중 한쪽이라도 생존해 있는 852명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자녀가 1명 있는 경우로 제한한 것은 추가적인 출산의도에 어떠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며, 노부모가 생존해 있어야 함은 노부모에 대한 생활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첫 자녀 연령이 13세 이상인 경우는 출산의도가 거의 없고 무응답이 많아 제외하였다.

2. 연구문제

- 1) 가족의 일반적 특성(자녀관련 변수, 부인의 취업상태 및 근로조건, 경제적 상태)에 따라 출산의도는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
- 2) 가족의 자녀교육비 및 노부모에 대한 생활비 지원에 따라 출산의도는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
- 3) 가족의 일반적 특성(자녀관련 변수, 부인의 취업상태 및 근로조건, 경제적 상태)에 따라 노후준비는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
- 4) 가족의 자녀교육비 및 노부모에 대한 생활비 지원에 따라 노후준비는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
- 5) 가족의 출산의도와 노후준비를 결정하는 변수는 무엇인가?

3. 변수의 측정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종속변수는 출산의도와 경제적 노후준비를 선정하였으며, 독립변수는 자녀관련 변수와 부인취업관련 요인, 경제적 변수, 부양관련 변수로 자녀교육비 및 노부모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선정하여 각각의 변수를 포함하였다.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표 III-1>과 같다. 이는 여성가족패널조사에서 측정한 방법이며, 새로운 변수를 형성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작적 정의를 제시하였다.

4. 분석방법

먼저 가족의 일반적 변수 및 부양관련 비용에 따른 출산의도와 노후준비의 차이를 알아보

3) 여성가족패널조사의 경우 45세 미만의 기혼여성에게 출산계획이 있는지의 여부를 묻고 있음.

〈표 III-1〉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설명

변수 범주		변수명	측정방법
종속변수		출산의도(계획)	1=있다, 2=없다, 3=모르겠다
		경제적 노후준비 (노후준비 방법)	1=경제적 노후준비 하고 있다, 2= 하고 있지 않다 (1=공적노후준비, 2=사적노후준비, 3=두 방법 병행)
독립변수			
일반적 특성	자녀관련 변수	· 첫 자녀 연령 · 첫 자녀 성별	· 출생연월일로 계산 · 1=남, 2=여
	부인 취업 관련 변수	· 부인의 취업상태 · 부인의 근로조건	· 지난 1주간 직장을 갖고 있는지 여부 (취업상태) · 1=임금근로자, 2=비임금근로자
	경제적 변수	· 가족의 경제적 상태 - 주택구분 - 남편, 부인소득 · 경제상태에 대한 인식	- 1=자가, 2=전세, 3=보증부월세, 4=월세, 5=기타 - 월평균 _____ 만원 - 1=매우여유가 있다, 2=여유가 있는편이다, 3=보통이다, 4=조금 어려운편이다, 5=매우 어렵다
부양관련 변수		· 자녀교육비 비중 · 노부모에 대한 생활비 지원	· 자녀교육비는 자녀공교육비와 자녀사교육비를 합하였음 (미취학아동의 경우 아동보육비도 포함) · 자녀교육비 비중=자녀교육비/소비지출 · 생활비 부담 여부 부담=1, 부담하지 않음=2

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부 한 셀의 빈도가 낮아서 교차분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빈도분석을 통해 경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출산의도와 경제적 노후준비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모든 자료 분석을 위해 SAS 9.1 Package Program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표 IV-1 참조>

2. 출산의도

1) 가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출산의도

가족과 관련한 여러 일반적 특성에 따라 출산의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표 IV-2> 참조). 그 결과 기혼여성의 출산의도는 자녀연

령과 부인의 근로상태에 따라 집단간 차이가 있었으며, 자녀의 성별이나 부인의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자녀연령의 경우 첫 자녀 연령이 높아지면 터울이 많아짐에 따라 출산할 의도가 없어지는 일반적인 결과를 반영한다. 부인 직업 관련 변수에서는 취업 여부보다는 근로조건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비교적 안정적인 임금근로자의 출산 의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경제상태에 따른 기혼여성의 출산의도의 경우 객관적 경제 상태보다는 이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3> 참조). 즉 객관적 경제상태를 반영하는 소득이나 주택구분의 경우에는 출산의도가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주관적 경제적 상태에 대한 인식에서만 차이를 보였다. 즉 자신의 경제상태가 '여유있는 편이다' 또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집단의 경우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집단보다 출산의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의도에서는 객관적 경

<표 IV-1> 인구·사회학적 특성

(N= 852)

부인 관련사항			자녀 관련사항		
	빈도	%		빈도	%
연령			연령		
20~24세	16	1.9	0~3세	539	63.3
25~29세	158	18.5	4~7세	186	21.8
30~34세	355	41.7	8~12세	127	14.9
35~39세	228	26.8	성별		
40~45세	95	11.1	남	455	53.4
			여	397	46.6
교육수준			보육시설 및 사교육시설		
고졸이하	377	44.2	(6세 미만의 경우)	42	6.7
대졸	454	53.3	유치원	37	5.9
대학원졸 이상	21	2.5	어린이집, 놀이방 등 보육시설	10	1.6
			학원(학과목, 예체능)	425	67.3
			예체능 등 개인교습	117	18.5
			보내지 않음		
취업여부			노부모 관련사항		
취업	175	21.7			
비취업	630	78.3			
주택구분			생존		
자가	390	45.8	(N=798, 820)	시아버지만	46
전세	310	36.4		시아머니만	224
월세 등	152	17.8		두 분 모두	528
				친정아버지만	40
				친정어머니만	214
				두 분 모두	566
소득 (평균)※			동거 여부	시부모와 동거	69
남편소득(N=610)	257만원			친정부모와 동거	27
부인소득(N=143)	168만원			동거하지 않음	756

※ 소득은 임금근로자만 대상으로 함

제상태보다는 이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더 중요함을 나타낸다 하겠다.

2) 자녀교육비⁴⁾ 및 노부모에 대한 생활비 지원에 따른 출산의도

다음으로 자녀교육비 및 노부모에 대한 생활비 지원과 출산의도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표 IV-4> 참조). 두 변수중 자녀교육비 비중의 경우만 출산의도에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4) 자녀교육비 액수와 자녀교육비가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모두를 살펴보았으나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 자녀교육비 비중에 대한 결과만을 보고함.

를 보였다. 즉 자녀교육비 비중이 0%인 집단이 가장 출산의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낮음, 높음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부모에 대한 생활비 지원 여부의 경우 지원을 안하고 있는 경우의 출산의도가 더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자녀 연령대가 낮을 경우 상대적으로 교육비 지출이 낮을 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출산의도를 자녀 연령대별로 분리하여 빈도를 살펴보았다(<표 IV-5> 참조).

〈표 IV-2〉 가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출산의도

(단위: 빈도(%), N=852)

분류		출산의도				X ² 값
		있다	없다	모르겠다	합계	
자녀 연령	0~3세	336(62.3)	125(23.2)	78(14.5)	539(100.0)	174.02***
	4~7세	66(35.5)	104(55.9)	16(8.6)	186(100.0)	
	8~12세	12(9.5)	101(79.5)	14(11.0)	127(100.0)	
	합계	414(48.6)	330(38.7)	108(12.7)	852(100.0)	
자녀 성별	남	217(47.7)	182(40.0)	56(12.3)	455(100.0)	0.67
	여	197(49.6)	148(37.3)	52(13.1)	397(100.0)	
	합계	414(48.6)	330(38.7)	108(12.7)	852(100.0)	
부인의 취업 상태	취업	74(42.3)	79(45.1)	22(12.6)	175(100.0)	4.06
	비취업	315(50.0)	233(37.0)	82(13.0)	630(100.0)	
	합계	389(48.3)	312(38.8)	104(12.9)	805(100.0)	
부인의 근로 조건	임금근로자	78(53.1)	52(35.4)	17(11.5)	147(100.0)	12.09**
	비임금근로자	16(26.7)	32(53.3)	12(20.0)	60(100.0)	
	합계	94(45.4)	84(40.6)	29(14.0)	207(100.0)	

* p <.05, ** p <.01, *** p <.001

〈표 IV-3〉 가족의 경제적 상태에 따른 출산의도

(단위: 빈도(%), N=852)

분류		출산의도				X ² 값
		있다	없다	모르겠다	합계	
경제 상태 인식	여유있는 편	64(52.9)	42(34.7)	15(12.4)	121(100.0)	11.44*
	보통	233(51.2)	159(34.9)	63(13.9)	455(100.0)	
	어려운 편	115(42.1)	128(46.9)	30(11.0)	273(100.0)	
	합계	412(48.5)	329(38.8)	108(12.7)	849(100.0)	
주택 구분	자가	188(48.2)	161(41.3)	41(10.5)	390(100.0)	9.17
	전세	155(50.0)	104(33.6)	51(16.4)	310(100.0)	
	월세 등	71(46.7)	65(42.8)	16(10.5)	152(100.0)	
	합계	414(48.6)	330(38.7)	108(12.7)	852(100.0)	
부인 소득 ¹⁾	높음	37(54.4)	20(29.4)	11(16.2)	68(100.0)	3.52
	낮음	38(50.7)	31(41.3)	6(8.0)	75(100.0)	
	합계	75(52.4)	51(35.7)	17(11.9)	143(100.0)	
남편 소득 ¹⁾	높음	147(48.8)	121(40.2)	33(11.0)	301(100.0)	4.29
	낮음	157(50.8)	104(33.7)	48(15.5)	309(100.0)	
	합계	304(49.8)	225(36.9)	81(13.3)	610(100.0)	

줄: 1) 부인소득 중위값 150만원, 남편소득 중위값 220만원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을 경우 높음, 낮을 경우 낮음으로 분류함

* p <.05, ** p <.01, *** p <.001

〈표 IV-4〉 자녀교육비 및 노부모에 대한 생활비 지원 여부에 따른 출산의도

(단위: 빈도(%), N=852)

분류		출산의도				X ² 값
		있다	없다	모르겠다	합계	
자녀교육비 비중 ¹⁾	0%	256(63.8)	84(21.0)	61(15.2)	401(100.0)	106.40***
	낮음	90(40.0)	114(50.7)	21(9.3)	225(100.0)	
	높음	68(30.1)	132(58.4)	26(11.5)	226(100.0)	
	합계	414(48.6)	330(38.7)	108(12.7)	852(100.0)	
노부모에 대한 생활비지원	하고있음	67(42.4)	72(45.6)	19(12.0)	158(100.0)	3.93
	안하고있음	347(50.0)	258(37.2)	89(12.8)	694(100.0)	
	합계	414(48.6)	330(38.7)	108(12.7)	852(100.0)	

주: 1) 자녀교육비 비중 중위값인 15.2%보다 높은 경우 높음, 이보다 낮은 경우 낮음이라고 조작적 정의함

* p < .05, ** p < .01, *** p < .001

〈표 IV-5〉 자녀교육비 비중에 따른 자녀 연령대별 출산의도

(단위: 빈도(%), N=852)

교육비 비중		출산의도			
		있다	없다	모르겠다	합계
0~3세 (N=539)	0%	249(64.3)	78(20.2)	60(15.5)	387(100.0)
	낮음	46(60.5)	22(29.0)	8(10.5)	76(100.0)
	높음	41(53.9)	25(32.9)	10(13.2)	76(100.0)
4~7세 (N=186)	0%	6(50.0)	5(41.7)	1(8.3)	12(100.0)
	낮음	28(32.2)	55(63.2)	4(4.6)	87(100.0)
	높음	32(36.8)	44(50.6)	11(12.6)	87(100.0)
8~12세 (N=127)	0%	1(50.0)	1(50.0)	0(0.0)	2(100.0)
	낮음	6(9.5)	49(77.8)	8(12.7)	63(100.0)
	높음	5(8.1)	51(82.2)	6(9.7)	62(100.0)

주: 교육비 비중 중위값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은 경우 높음, 낮은 경우 낮음으로 구분하였으며, 0~3세는 중위값이 10.1%, 4~7세의 경우 16.6%, 8~12세의 경우 19.0%였음.

셀 빈도가 낮은 경우가 있어 교차분석은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같은 연령대의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출산의도는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볼 때 자녀가 0~3세인 경우 교육비 지출비중이 0% > 낮음 > 높음의 순으로 출산의도가 '있다'라고 응답한 빈도가 높았고, 4~7세는 0% > 높음 > 낮음, 8~12세는 0% > 낮음 > 높음의 순이었으나 이 연령집단에서는 출산의도가 있다

고 응답한 빈도 자체가 낮았다. 이에 따라 같은 연령대일 경우, 특히 0~3세의 경우를 보면 상대적으로 교육비 지출 비중이 낮을수록 출산의도가 있다고 응답한 빈도가 높아 교육비 지출은 출산의도와 관련이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노부모에 대한 생활비 지원에 따른 출산의도의 경우에도 앞서와 동일한 이유로 자녀연령대를 구분하여 빈도를 살펴보았다

〈표 IV-6〉 노부모에 대한 생활비지원에 따른 자녀 연령대별 출산의도

(단위: 빈도(%), N=852)

노부모에 대한 생활비지원		출산의도			
		있다	없다	모르겠다	합계
0-3세 (N=539)	하고 있음	48(57.8)	20(24.1)	15(18.1)	83(100.0)
	안하고 있음	288(63.2)	105(23.0)	63(13.8)	456(100.0)
4-7세 (N=186)	하고 있음	15(36.6)	23(56.1)	3(7.3)	41(100.0)
	안하고 있음	51(35.2)	81(55.9)	13(9.0)	145(100.0)
8-12세 (N=127)	하고 있음	4(11.8)	29(85.3)	1(2.9)	34(100.0)
	안하고 있음	8(8.6)	72(77.4)	13(14.0)	93(100.0)

(〈표 IV-6〉 참조). 그 결과 0~3세의 경우 생활비 지원을 안하는 집단의 출산의도가 '있다'라고 응답한 빈도가 높았으며 자녀연령이 8~12세인 집단에서는 생활비 지원을 하고 있는 집단이 출산의도가 '없다'라고 응답한 빈도가 높았다. 그러나 역시 빈도가 낮은 셀이 있어 교차분석을 실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집단간 차이에 대한 해석에는 제한이 될 것이다.

3. 노후준비

1) 가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

가족과 관련한 여러 일반적 특성에 따라 노후준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 결과 자녀연령과 부인의 취업상태에 따라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표 IV-7〉 참조)⁵⁾. 즉 자녀연령이 높아질수록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

〈표 IV-7〉 가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

(단위: 빈도(%), N=852)

분류		노후준비			X ² 값
		하고 있다	안하고 있다	합계	
자녀 연령	0~3세	248(46.0)	291(54.0)	539(100.0)	13.78***
	4~7세	108(58.1)	78(41.9)	186(100.0)	
	8~12세	77(60.6)	50(39.4)	127(100.0)	
	합계	433(50.8)	419(49.2)	852(100.0)	
부인의 취업상태	취업	113(64.6)	62(35.4)	175(100.0)	17.88***
	비취업	293(46.5)	337(53.5)	630(100.0)	
	합계	406(50.4)	399(49.6)	805(100.0)	
근로조건	임금근로자	96(65.3)	51(34.7)	147(100.0)	0.25
	비임금근로자	37(61.7)	23(38.3)	60(100.0)	
	합계	133(64.2)	74(35.8)	207(100.0)	

* p <.05, ** p <.01, *** p <.001

5) 앞에서 살펴보았던 자녀 성별은 노후준비와 관련이 없는 변수로 판단하여 제외함

(표 IV-8) 가족의 경제적 상태에 따른 노후준비

(단위: 빈도(%), N=852)

분류		노후준비			X ² 값	
		하고 있다	안하고 있다	합계		
경제 상태 인식	여유있는 편	94(77.7)	27(22.3)	121(100.0)	58.49***	
	보통	238(52.3)	217(47.6)	455(100.0)		
	어려운 편	99(36.3)	174(63.7)	273(100.0)		
	합계	431(50.8)	418(49.2)	849(100.0)		
주거 상태	자가	213(54.6)	177(45.4)	390(100.0)	13.42**	
	전세	163(52.6)	147(47.4)	310(100.0)		
	월세 등	57(37.5)	95(62.5)	152(100.0)		
	합계	433(50.8)	419(49.2)	852(100.0)		
소득 ¹⁾	부인	높음	49(72.1)	19(27.9)	68(100.0)	3.37
		낮음	43(57.3)	32(42.7)	75(100.0)	
		합계	92(64.3)	51(35.7)	143(100.0)	
	남편	높음	200(66.5)	101(33.5)	301(100.0)	51.02***
		낮음	116(37.5)	193(62.5)	309(100.0)	
		합계	316(51.8)	294(48.2)	610(100.0)	

주: 1) 앞에서와 동일하게 부인소득 중위값: 150 남편소득 중위값: 22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을 경우 높음, 낮을 경우 낮음으로 분류함

* p <.05, ** p <.01, *** p <.001

중이 높았으며, 부인이 취업상태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는 비중이 높았다. 부인의 근로조건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경제적 상태에 따른 노후준비 여부의 경우 경제상태 인식과 주거상태, 남편소득에 따라 노후준비는 차이를 보였다(<표 IV-8> 참조). 즉 경제적 상태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집단지, 주거상태가 월세 등인 집단지, 남편의 소득이 낮은 집단지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부인 소득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노후준비의 경우 앞의 출산의도의 분석결과와는 달리 객관적인 경제상태와 주관적인 경제상태 인식 모두 차이를 보였다. 이는 노후준비의 경우 노후에 대한 경제적인 의사결정이므로 객관적

인 경제관련 변수들도 차이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남편의 소득은 부인소득과는 달리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의 경우 소득이 높은 경우 정규직일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비율이 높아 소득의 높고 낮음에 따라 노후준비 여부에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2) 자녀교육비 및 노부모에 대한 생활비 지원에 따른 노후준비

(1) 전체 연령에서의 노후준비

자녀교육비와 노부모에 대한 생활비지원에 따라 노후준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살펴본 결과, 두 변수 모두 노후준비에는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9> 참조). 자

〈표 IV-9〉 자녀교육비 및 노부모에 대한 생활비 지원 여부에 따른 노후준비

(단위: 빈도(%), N=852)

분류		노후준비			X2값
		하고 있다	안하고 있다	합계	
자녀교육비 비중	0%	177(43.2)	224(54.6)	410(100.0)	13.72***
	낮음	130(57.8)	95(42.2)	225(100.0)	
	높음	126(55.8)	100(44.2)	226(100.0)	
	합계	433(50.8)	419(49.2)	852(100.0)	
노부모에 대한 생활비지원	하고 있음	105(66.5)	53(33.5)	158(100.0)	18.97***
	안하고 있음	328(47.3)	366(52.7)	694(100.0)	
	합계	433(50.8)	419(49.2)	852(100.0)	

* p <.05, ** p <.01, *** p <.001

녀교육비 비중의 경우 비중이 없는 경우가 노후준비를 상대적으로 적게 하고 있었으며 비중의 높고 낮음에서는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노부모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안하고 있는 집단보다 하고 있는 경우에 노후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의 <표 IV-8>의 결과를 놓고 볼 때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집단의 객관적 경제적 상태가 더 좋은 경향이 있다고 본다면 노부모에 대한 생활비 지원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상태가 좋은 경우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자녀교육비와 노부모에 대한 생활비 지원과 노후준비와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후준비의 방법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표 IV-10> 참조). 즉 노후준비를 공적준비 혹은 사적준비만 하는 집단과 둘을 병행하는 집단의 차이를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공적준비나 사적준비만을 하는 집단보다 공사를 병행하는 집단이 노후보장을 다층으로 구성하고 있어 바람직하며 긍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자녀교육비에 지출 비중이 낮은 집단이 교육비 지출 비중이 없거나 큰 집단보다 노후준비를 공사적

〈표 IV-10〉 자녀 및 노부모 관련 비용 따른 노후준비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단위: 빈도(%), N=432)

분류		노후준비				X2값
		공적준비만	사적준비만	공사병행	합계	
자녀교육비 비중	0%	23(13.0)	112(63.6)	42(23.7)	177(100.0)	9.63*
	낮음	8(6.2)	72(55.8)	49(38.0)	129(100.0)	
	높음	16(12.7)	72(57.1)	38(30.2)	126(100.0)	
	합계	47(10.9)	256(59.3)	129(29.9)	432(100.0)	
노부모에 대한 생활비지원	하고 있음	9(8.6)	58(55.2)	38(36.2)	105(100.0)	2.92
	안하고 있음	38(11.6)	198(60.5)	91(27.8)	327(100.0)	
	합계	47(10.9)	256(59.2)	129(29.9)	432(100.0)	

* p <.05, ** p <.01, *** p <.001

〈표 IV-11〉 교육비 비중에 따른 자녀 연령대별, 방법별 노후준비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단위: 빈도(%), N=432)

교육비 비중		노후준비			
		공적준비만	사적준비만	공사병행	합계
0~3세 (N=248)	0%	21(12.3)	110(64.3)	40(23.4)	171(100.0)
	낮음	2(4.6)	22(51.2)	19(44.2)	43(100.0)
	높음	2(5.9)	18(52.9)	14(41.2)	34(100.0)
4~7세 (N=108)	0%	2(40.0)	2(40.0)	1(20.0)	5(100.0)
	낮음	5(9.8)	29(56.9)	17(33.3)	51(100.0)
	높음	9(17.3)	34(65.4)	9(17.3)	52(100.0)
8~12세 (N=76)	0%	0(0.0)	0(0.0)	1(100.0)	1(100.0)
	낮음	2(5.1)	21(53.9)	16(41.0)	39(100.0)
	높음	4(11.1)	20(55.6)	12(33.3)	36(100.0)

준비를 병행하는 경향이 있었다.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경우 지원을 하고 있는 집단이 공사병행을 하는 빈도가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2) 자녀 연령대별 노후준비

앞에서 살펴보았던 출산의도의 경우 자녀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면, 노후준비도 자녀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노년기에 더욱 가까워지게 되면서 더 많이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자녀 연령대별로 노후준비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구분하여 빈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결과 자녀연령이 낮은 경우에는

(0~3세) 자녀교육비 비중이 0%일 때 사적준비를 하는 경향이, 낮음 혹은 높음이라 응답했을 때 공사병행하는 경향이 있었다(〈표 IV-11〉 참조). 그러나 자녀연령이 높아질수록 (교육비 비중이 0%인 경우는 거의 없어 이를 제외하고 본다면) 교육비 비중이 높은 집단의 경우 공적준비나 사적준비 한 가지 방법에 의해서만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경향이 높아지고, 교육비 비중이 낮은 집단은 공사병행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즉 교육비 비중이 높은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비목에 지출할 여유가 줄어들고 가장 기초적인 방법 한가지만으로 노후준비를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4~7세와 8~12세

〈표 IV-12〉 노부모에 대한 생활비지원에 따른 자녀 연령대별, 방법별 노후준비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단위: 빈도(%), N=432)

노부모에 대한 생활비지원		노후준비			
		공적준비만	사적준비만	공사병행	합계
0~3세 (N=248)	하고 있음	3(6.7)	25(55.6)	17(37.8)	45(100.0)
	안하고 있음	22(10.8)	125(61.6)	56(27.6)	203(100.0)
4~7세 (N=108)	하고 있음	4(11.4)	22(62.9)	9(25.7)	35(100.0)
	안하고 있음	12(16.4)	43(58.9)	18(24.7)	73(100.0)
8~12세 (N=76)	하고 있음	2(8.0)	11(44.0)	12(48.0)	25(100.0)
	안하고 있음	4(7.8)	30(58.8)	17(33.3)	51(100.0)

의 경우 N수가 적어서 이에 대한 해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다음으로 노부모에 대한 생활비지원 여부를 자녀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노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 집단의 경우 노후준비를 공사병행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높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공적준비 혹은 사적준비만으로 노후준비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IV-12> 참조). 노부모에 대한 생활비 지원은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그 가정의 경제력을 반영한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이는 추가적인 분석이 더 필요하겠지만 자녀교육비 지출 변수와는 달리 경제적 여유가 있을수록 노부모에게 지원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3) 출산의도와 노후준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중년기 가족의 출산의도와 노후준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영향력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⁶⁾을 실시하였다. 출산의도의 경우 ‘있다’, ‘없다’, ‘모르겠다’로 응답하였는데,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경우 종속변수가 이분변수이어야 하므로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제외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독립변수들이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독립변인으로 투입되었고 앞의 분석결과에서 자녀연령은 출산의도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제외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표 IV-13>, <표 IV-14>와 같다.

본 분석대상의 경우 출산의도가 높아질 가능성은 경제적 상태에 대해 어렵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을 경우(여유로운 편이다, 보통)와 교육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을 경우, 부인의 소득이 높을 경우였다. 즉 교육비 비중이 1% 감

<표 IV-13> 출산의도 가능성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N=744)

독립변인 (괄호안은 준거집단)	Coefficient (Std. Error)		Odds Ratio
상수	-0.11	(0.65)	
자녀관련요인			
자녀 성별 (남자)			
경제적 요인	0.07	(0.16)	1.07
남편소득			
부인소득	-0.0003	(0.0004)	1.00
주택구분(자가)	0.005**	(0.002)	1.01
전세			
월세 등	0.22	(0.18)	1.25
경제상태에 대한 인식	-0.13	(0.22)	0.88
(여유로움)			
보통	-0.18	(0.25)	0.84
어려움	-0.70**	(0.27)	0.50
부양관련 요인			
교육비 비중	-0.07***	(0.008)	0.93
노부모에 대한 생활비 지원 (하고있음)	0.26	(0.21)	1.29
부인의 취업관련 요인			
부인 취업여부 (취업)	0.00	(0.00)	1.00
-2 Log Likelihood	1021.9		
Chi-square (df=10)	109.9***		

소할 경우 출산의도의 승산이 7% 증가하였고, 경제상태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가정의 경우 여유롭다고 인식한 가정에 비해 출산의도의 승산이 70% 줄어들었다. 부인 소득의 경우 1만원 증가할 경우 출산의도의 승산이 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 가능성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도 앞서서의 출산의도 가능성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동일한 변수이나 자녀 성별 변수는 노후준비와의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되어 제외

6) 오즈비(odds ratio)는 각각의 독립변인들이 종속변인인 출산의도와 노후준비행동 결정의 오즈에 대해 갖는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서 1보다 크면 오즈를 증가시키고 1보다 작으면 오즈를 감소시킨다. 즉 오즈비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가 영향력의 크기를 나타낸다(차경옥, 2003).

하였다. 그 결과는 남편소득과 경제상태에 대한 인식, 노부모에 대한 생활비 지원, 부인 취업 여부 변수가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소득의 경우 1만원 증가할 경우 노후준비의 승산이 0.2% 증가하고, 경제적 상태에 대한 인식이 여유로운 가정에 비해 보통인 가정의 경우 노후준비의 승산이 106%, 어려운 가정의 경우 166%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이 취업한 가정의 경우 노후준비의 승산이 45% 감소하며, 노부모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 노후준비의 승산이 5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 노후준비 가능성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N= 744)

독립변인 (괄호안은 준거집단)	Coefficient (Std. Error)	Odds Ratio
상수	2.62*** (0.63)	
경제적 요인		
남편소득	0.002*** (0.00)	1.00
부인소득	0.002 (0.00)	1.00
주택구분(자가)		
전세	-0.10 (0.18)	0.90
월세 등	-0.35 (0.22)	0.70
경제상태에 대한 인식 (여유로움)		
보통	-1.06*** (0.27)	0.35
어려움	-1.66*** (0.29)	0.19
부양관련 요인		
교육비 비중	0.00 (0.01)	1.00
노부모에 대한 생활비 지원 (하고있음)	-0.51* (0.29)	0.60
부인 취업관련 요인		
부인 취업여부 (취업)	-0.45* (0.19)	0.64
-2 Log Likelihood	1029.7	
Chi-square (df=8)	107.9***	

V. 결론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는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함께 맞물려서 일어나는 문제이므로 이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풀어 가야 하는 문제로 보았다. 지금의 중년층들은 어느 나라보다 높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면서 자녀를 키우고 있고 또한 노후 또한 준비되지 않은 세대의 부모들을 모시고 불안정한 경제상황에서 자신의 노후까지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성공적으로 극복되지 않을 시 20-30년 후 이들이 노년층이 되었을 때 저출산과 고령화의 결과로 인한 여러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겪어야 하는 당면세대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출산의도와 노후준비와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기초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 출산의도(계획)에 응답한 45세 미만의 기혼여성인면서 노부모중 한쪽이라도 생존해 있는, 자녀가 1명인 총 852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SAS 9.1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의 일반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 중에 출산의도는 자녀연령, 부인의 근로조건, 경제적 상태 인식 변수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였으며 자녀연령이 0-3세인 집단이, 근로조건이 임금근로자인 경우가, 경제적 상태를 여유 있는 편이다 또는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집단의 출산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출산의도에 차이를 보일 것으로 기대했던 첫 자녀의 성별이나 부인의 취업상태, 남편과 부인의 소득 등에서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자녀비용 관련하여서는 자녀교육비 비

중이 없는 집단의 출산의도가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연령효과를 반영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자녀연령대별로 나누어(0~3세, 4~7세, 8~12세) 살펴보았다. 그 결과 빈도수가 낮아 교차분석은 할 수 없었으나 자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교육비 지출 비중이 높은 집단의 출산의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노부모 관련 변수 중 노부모에 대한 생활비 지원에서는 지원을 안하고 있는 경우의 출산경향이 더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다. 역시 연령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어 자녀연령대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을 때 일관적으로 자녀연령이 증가할수록 노부모에게 생활비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동일한 연령대에서는 두 집단이 비슷한 경향을 보여 경제적 지원여부에 따른 출산여부는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응답을 한 집단의 출산 의도는 자녀연령이 높아질수록 낮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였다.

셋째, 가족의 일반적 및 경제적 특성 중 노후준비에 집단 간 차이를 보인 것은 자녀연령과 부인의 취업상태, 경제상태에 대한 인식, 주거상태, 남편의 소득변수였다. 즉 자녀의 연령이 높은 집단이, 부인이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경제상태에 대해 여유롭다고 인식하고 있는 집단일수록, 주거상태는 자가 및 전세일수록 노후준비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부인의 근로조건이나 부인의 소득 정도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반영하므로 객관적, 주관적 경제적 상태에 관한 변수들이 모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자녀교육비와 노후준비와의 관련성에 있어서는 자녀교육비 지출비중이 0%인 집단이 노후준비를 상대적으로 적게 하고 있었으며 낮음 혹은 높음이라 응답한 집단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이를 노후준비를 하는 집단만을 대

상으로 노후준비 방법별로 공적준비, 사적준비, 공사를 병행해 준비하고 있는 집단으로 나누어서 살펴본 결과 자녀교육비 비중이 낮은 집단이 교육비 지출비중이 없거나 높은 집단보다 공사병행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후에 가까워지므로 노후준비를 더 하게 되는 연령효과를 반영할 수 있어 자녀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자녀연령이 낮을 경우에는 교육비 지출 비중이 높거나 낮음에 상관없이 노후준비는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만 자녀연령이 높아질수록 교육비 비중이 높은 집단의 노후준비는 한 가지 방법만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섯째, 노부모에 대한 생활비 지원 여부에 따라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노후준비를 하는 빈도가 높고, 지원을 안하고 있는 경우에는 노후준비를 안하는 빈도가 높았다. 또한 노후준비 방법별로 보았을 때에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 공사병행의 방법으로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경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았을 때에도 대체적으로 이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출산의도와 노후준비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로지스틱분석에서는 출산의도의 경우 경제 상태에 대한 인식과 교육비 비중, 부인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후준비의 경우 경제적 상태에 대한 인식과 노부모에 대한 생활비 지원, 부인의 취업여부, 남편의 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출산의도는 경제적 상태를 여유롭다고 인식할수록, 교육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부인의 소득이 높은 집단이 출산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후준비와 관련하여서는 부인이 비취업일 경우, 노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 경제적 상태가 어렵다고 인식하는 경우 노후준비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편소득이 높을수록 노후준비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가장 두드러진 결과는 경제적 상태에 대한 인식이 출산의도와 노후준비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차경욱(2005)은 저출산가계와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를 비교하였을 때 저출산가계가 미래 가계경제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저출산가계의 경우 유망적인 소득과 소비지출 수준은 높지만 저량적인 자산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중고령자의 현재소득인식이 긍정적일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더 하고 있다는 박창제(200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들이 경제상태에 대해 불안정하게 인식하고 있을 경우 출산도 유보하게 되고 노후준비 또한 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하게 될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들의 노후 역시 준비되지 못한 채 맞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중년기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전망을 도울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제시된다면 출산의도를 높이고 노후준비 행동도 더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한명의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출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는 전통적인 변수들(자녀성별, 부인의 취업상태, 소득)보다 교육비변수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가족들의 둘째 자녀 출산 결정에는 여러 정책들 중 교육과 관련한 정책이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이는 차경욱(2005)의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던바, 저출산가계의 경우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지출이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보다 더 많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한 자녀에게 집중 투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추가적인 분석이 더 필요하겠지만 많은 가족들은 자녀가 성공하는 것이 가장 큰 노후준비라고 보고 어떤 사항보다도 큰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비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들은 출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의도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따라야 할 것이다.

셋째, 노후준비의 경우 출산의도보다 경제적인 변수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 노후준비를 더 하게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지만 노후준비를 하는 경향이 더 높은 집단은 경제적으로 여유있다고 인식하는 경우, 주거형태가 자가 및 전세일 경우, 남편소득이 높을 경우, 교육비 지출이 높을 경우였다. 이는 주관적 및 객관적 경제상황이 좋을 경우 노후준비를 더 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와 더불어 노부모에 대한 생활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노부모를 경제적으로 지원할수록 노후준비를 더 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이선형(2008)의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자녀교육비 지출과는 달리 경제적 상황이 좋을 경우 노부모를 더 지원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여타 상황을 통제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에서는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노후준비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노인들이 자식을 노후대비의 방편으로 기대하였으나 그 자식은 여타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경우 노부모에게로의 지원은 쉽지 않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다만 중년층 노후준비와 관련하여서는 노부모 경제적 지원과 자녀 교육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연구결과의 해석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넷째, 로지스틱분석에서 출산의도에는 교육비가, 노후준비에는 노부모 생활비 지원이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금 20~45세의 기혼여성의 출산 계획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교육비 문제가, 노후준비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노부모에 대한 부양 문제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단편적으로 알 수 있다. 이로서 중년층 가족생활에 있어 출산이라는 아래세대에 대한 의사결정과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라는 윗세대로의 의사결정, 그리고 본인세대를 위한 노후준비라는 의사결정이 각각 떨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맞물려 있음을 부분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속적인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를 푸는 기초적인 단초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1명이며 자녀연령을 12세까지 포괄하여 분석하였으나 0~3세에 많은 샘플이 치우쳐져 있어 나머지 연령대의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노후준비의 경우 직장을 갖게 되는 연령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다면 연령에 따른 큰 차이가 있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나 현실적으로는 노년기가 가까워지는 연령일수록 노후준비를 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이에 따라 자녀연령이 높은 경우는 출산의도의 분석대상이 적고, 자녀연령이 낮은 경우는 노후준비의 분석대상이 적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출산의도와 노후준비에 관한 포괄적인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자녀세대에 대한 부양 부담의 비용을 교육비(보육비 포함)로 노부모세대에 대한 부양 부담을 노부모에 대한 생활비 지원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이러한 여러 세대에 걸쳐있는 변수들을 살펴본 내용이 부족하여 연구결과를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할 수 없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고려하여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경기지방통계청(2007). 경기도 사회통계조사 결과(가족, 보건, 사회참여, 노동). 수원: 경기도.
- 2) 김명록(2006). 노인들의 노후생활 부양요구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 김윤성(2007). 임신부의 재출산 의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 4) 김중식(2006). 영아전담어린이집 이용 기혼모의 재출산 의향에 관한 연구. 대구대 석사학위논문.
- 5) 김태현(1981). 한국에 있어서의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가족부양의 실태와 부양만족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6) 뉴시스(2007). 연금 수령 65세로 늦추면 매년 수령액 6%씩 증가. 2007년 6월 29일자.
- 7) 마미정(2008). 맞벌이 부부의 둘째 자녀 출산의도와 출산기피 요인 탐색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8) 박은영(2007). 초임부와 배우자의 재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고신대 보건대 석사학위논문.
- 9) 박은주 역(2005). 가족이후에 무엇이 오는가?. Elizabeth Beck-Gernsheim 저. 서울: 새물결.
- 10) 박창제(2008).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60(3), 275-297.
- 11) 박현주(2006). 기혼여성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2) 손서희(2004). 기혼자녀와 부모간의 친밀감에 따른 부양행동 및 부양부담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3) 신용하, 장경섭(1996). 21세기 한국의 가족과 공동체 문화. 서울: 지식산업사.
- 14) 안중범, 전승훈(2008). 교육 및 소득수준의 세대간 이전. 재정학연구 1(1), 119-142.

- 15) 연합뉴스(2007). 가구당 월 과외비 50만 2천원. 5년간 34.7%↑. 2007년 12월 5일자.
- 16) 우석진(2007). 저출산대책으로서의 재정정책이 여성의 출산, 노동공급, 결혼 결정에 미치는 효과. 재정포럼 12(6), 27-45.
- 17) 윤경선(2004). 중년층 근로자들의 경제적 노후준비활동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8) 이선형(2008). 중년기 가구의 노인 및 자녀 세대 부양과 노후 준비와의 관계: 유치원, 초중고 재학생 자녀를 둔 가구를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9) 이성림(2005a). 과소비·부채가계의 가계 경제 구조 분석: 과소비·부채가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소비자학 연구 16(1), 73~95.
- 20) 이성림(2005b). 사교육비 부담과 가계의 소비지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63~76.
- 21) 이윤정(1994).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부담 정도와 부양에 따른 부담감.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2) 이재춘(2007). 초등교사의 노후대비 금융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대전광역시 초등교사를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23) 이희자, 김영미(1996). 청소년의 부모 부양의 시기와 중년기 부모의 노후 준비도, 대한가정학회지 34(2), 117~128.
- 24) 임월(1997). 중년기 부부의 노부모 부양행동 및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5) 장보현(2006). 저출산 대책의 가족영향평가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 26) 조세희(2002). 노인가족부양자의 부양부담이 장기요양보호서비스 필요도 및 이용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7) 조순옥(2001). 중년기 독신자와 기혼자의 노후 대비 수준 비교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8) 차경옥(2003). 미국 편모가계의 저축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1(6), 91~104.
- 29) 차경옥(2006). 저출산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경제구조 비교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137~148.
- 30) 최재석(1989).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개문사.
- 3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대전: 통계청. www.nso.go.kr.
- 32) 통계청(2005). 2005 사회통계조사, 대전: 통계청. www.nso.go.kr.
- 33) 통계청(2007). 2007 사회통계조사, 대전: 통계청. www.nso.go.kr.
- 34)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35)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4a).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36)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4b). 2004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37)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5).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서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38) 한선영(2006).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9) 허경옥(2007). 다양한 측정방법을 활용한 자녀양육비 측정 및 새로운 측정방법 개발, 소비자학연구 18(3), 19~41.
- 40) Amirkhanyan, A. A. & Wolf, D.A.(2006). Parent Care and the Stress Process: Findings from Panel Data.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61(5), 248~ 255.
- 41) Musil, C.M., Warner, B. Zauszniewski, J.A., Jeanblanc, A.B., & Kercher, K. (2006).

- Grandmothers, Caregiving, and Family Functioning,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61(2), 89.
- 42)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ONS)(2008). *Social Trends*. 38. NY: Palgrave Macmillan.
- 43) Rose, J. H., Bowman, K. F., O'Toole, E. E., Abbott, K. Love, T. E. Thomas, C. & Dawson, N. V. (2007). *Caregiver Objective Burden and Assessments of Patient-Centered, Family-Focused Care for Frail Elderly Veterans*. *The Gerontologist* 47(1), 21~33.
- 44) U.S. Census Bureau(2005). *65+ in the United States: 2005*. Washington, DC: U.S. Census Bureau.
- 투 고 일 : 2009년 1월 15일
 - 심 사 일 : 2009년 1월 21일
 - 심사완료일 : 2009년 4월 1일